월 소식을 전합니다.
따뜻한(후방) 봄 날 주신 주님을 찬양 합니다. 머나먼 곳에서 일어나는 사역들을 가까이서 피부로 느끼지 못하여도 늘 한결같이 후원의 열정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교회 모든 식구들과 교회들께 감사 또 감사 전합니다.
이곳의 모든 식구들도 주님의 돌보심과 여러분들의 따뜻한 배려속에 모두 평안들 합니다. 이곳의 날씨는 습도가 높아 아직도 최고로 더운 계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발자욱 움직이면 반드시 땀을 흘려야하는 고충의 계절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방의 따스한 봄 날씨와 그윽한 봄꽃 향기를 음미하며 마음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4 월의 선교지 소식을 나눕니다.

탕가 신학교(T.C.B.C.)

방학 중이라 특별한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4 년제 신학교로 발돋움 해야 될것 같아 새로 부임한 Nywage 학장 목사님과 함께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제의 안일함에 안주하지 않고 서서히 지금보다 한 단계 발전을 위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2 번째 term 신학교 개강은 5 월 3 일 입니다.

리빙 스톤 학교소식(Living Stone Boys' Seminary)

이제 약 1 개월 후면 2014 년도 첫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5 월 21 일 부터 27 일 까지 학기말 고사기간이며 곧 바로 방학이 시작됩니다. 종강까지 약 5 개월 동안 학교안에서 생활하느라 인내의 수고를 하고있는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큰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역사를 위하여 후방에서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선교회 모든 식구들께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1. 과학관 공사 나무 구입

기초 공사(약 80%)와 1 층 벽 쌓기가 끝나면 1 층 슬라브 공사를 하게되는데 그 공사에 필요한 나무 구입을 위하여 탄자니아 서남쪽에 있는 산판(Njombe 지역 왕복 1,600km) 지역을 4 박 5 일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나무를 이곳 탕가에서 구입하려면 약 $35,000.이 필요한데 현지에서 직접 구입함으로 약 $25,000.을 절약했습니다. 차량운임 등 모든 경비를 포함 $10,700. 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기초가 굳어지면 곧 바닥 세멘트 일을 시작하게됩다.

2. 부활절 행사 소식.

1) 학교에서 1 시간 거리에 있는 탕가(인도양) 바닷가에서 부활절 행사기간중 74 명의 학생들과 교사 1 명이 침례를 받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학교로 정식 인가받아 시작한 학교였지만 처음 학교가 시작될때에 염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영적으로도 많은 안정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2) 영어 컨테스트 행사.

전교생이 참석하는 부활절 영어컨테스트 행사였습니다.
1 단계 : 전교생 283 명이 100 문제의 객관식 문제의 시험을 치러서,
2 단계 : 50 명을 뽑아 간단한 영어 작문 시험을 보아,
3 단계 : 그 중에서 20 명을 뽑았으며,
4 단계로 20 명 이 각각 2 분 스피치를 겨루어 그 중에서 7 명을 뽑아 5 분씩 스피치하여 3 명의 최종적인 승리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행사의 목적은 영어 향상이 목적이었습니다.

3) 부활절 점심 행사(한국식 불고기)

이 점심 행사는 한국 사역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식 불고기는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이런 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런 행사를 하면서 얻은 경험은 후방에서 팀들이 방문 하실때 이와같은 시간을 나누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3. 학생들 미국 방문 (vision trip)

7 명의 학생들과 교사 1 인(교장)이 6 월 6 일(출국) 부터 19 일(미국에서 출국) 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미국의 발전상과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갖게하여 그들의 미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서의 일정은 이미 의논 드린대로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도움 주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회의 협조를 구할것입니다. 현재 비행기표를 구입했고 그룹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경비는 학부모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비자 통과를 위하여 기도 부탁 드립니다.

기도제목:

1. 과학관 건축의 진전을 위하여.
2. 학생들 미국방문 비자 및 여행을 위하여.
3. 박선교사의 결혼예식을 위하여 (6 월 14 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선교회 위에 가득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4/04/23 박윤석 선교사 드림